



생명지킴추진본부, 천주교와 손잡고 '자살예방 네트워크' 강화

- 천주교 실무 현장과 정부 정책 연결, 실효성 있는 생명안전망 구축

□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 이하 생명본부)는 9월 11일(금) 오후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오승원)*가 주최한 「한마음한몸 자살예방 네트워크 포럼」에 참여하였다.

* 1989년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기념하여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제안으로 설립한 자살예방, 장기기증, 헌혈 등 '생명 존중' 활동단체

○ 이번 포럼은 2026년 자살예방의 날(9.10)을 기념하여, 천주교 교구, 수도회,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자살예방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살예방을 위한 교회의 연결과 협력을 내용으로 각 기관의 사업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포럼의 1부 세션에서는 천주교 교구와 수도회 등에서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사업과 수도회·본당 등 천주교 내부의 주요 자살예방 활동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2부 세션에서는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이 자살 시도 환자 지원 사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자살 유가족 사별모임, 가톨릭 평화방송의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취재 내용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 생명본부 송민섭 본부장은 정부의 국가 자살예방 정책 및 동향을 소개하고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는 자살률 현황*을 설명하면서 자살예방 현장에서 헌신하는 천주교 실무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 2024년 14,872명 → 2025년 13,774명(1,099명 감소) → 2026년 상반기 6,339명(849명 감소)

- 생명본부 송민섭 본부장은 “천주교가 교구와 수도회, 의료·복지기관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살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오늘 이 포럼을 통해 천주교계의 다양한 활동들과 정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현장에서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생명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법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책임자	과장	이효식	(044-200-6369)
		담당자	사무관	김봉주	(044-200-6387)

<현장 사진>



한마음한몸 자살예방 네트워크 포럼('26.9.11.)

국가 자살예방 정책 및 동향

법정부 생명지킴추진본
송민섭

